東大時報

檀紀四二八九年度 東國大學校 入學試驗 要綱

發行人 編輯兼印刷人 郁性白
編輯局長 金鍾鎬

發行所 東國大學校內 東大時報社
電話本局(2)1685 1686

週刊 第二十八號 檀紀4289年2月19日發行 一部五十圓

八九年度新入生選拔은前期로

自三月二日 至三月六日

四個大學에서 一齊히 數學이 必須科目에서除外

四二八九年度一學年 新入生選拔要綱이 이미 發表되었거니와 이에關 하여本校 教務處長 張元圭敎授는 지난五日 本報記者 에게 要旨다음과같이 말하였다

▲今年의 新入生銓衡方針 例年에比해 別로特異한點은 없으며 다만筆答試驗必須科目中에서 數學이 除外되었다는 點인데 이는 入學志願學生들의 便宜를 圖하려는 學校當局의 方針에 依據한것이나 이로인하여學生들의 實質的負擔 도저히 감수할수없으며 오히려 數學을 必須科目에 除外하므로서 入學學에 優秀한學生을 確保할수있다고보다

選擇科目에있어서 指定選擇科目以外에 平素實力을 安心하고 自由로울게많은 科目中에서 選擇할수있다 이方針은 高校當時 個人의學問的 경향과 그素質을 試驗成績에 反映시키려는 意圖에서였다

▲이外에 具體的인 銓衡方法에關하여는 尚今 發表할수없으나 志願者數와 得點狀況에따라 合格될人數가 決定될것이며 安心하고 實力껏 試驗에應해달게 되기 바라며 兩者모다 一의 人的狀況을 把握코저 試驗科目에만 偏重될憂慮 없음에도不拘하고 唯獨히 色다른方式으로 特徵짓고있다는것은 道義上 判斷키어려운點이있다 그러한 広告를 본 高校生및學父兄이나 先生님들이 果然 어떻게 생각할것인지는 不問에부치더라도 敎育機關으로서의 道義上 큰 어떻까하는바이다

만음에 競爭率에關한것인데 昨年度의例를보아 巢中되는科에 따라서는 十五·六對로 上昇하는 하는데 學校自體로보아서는 大幸히 名譽로운 現象일지는몰라도 應試者로서의 恐怖는 말할것도없고 經濟的인 敎育上에서보면 決코 그弊端은 적지않음것이分明하다 競爭率이 甚하면 그 比例로 高等學校의 敎育方向은 試驗科目에만 年中 骨髓케 될것임으로 競爭率이 甚한 大學에 많이合格되는 高校나 그先生님이 흥분하다고 判定한다면 차라리 試驗科目外의 不必要한 科目을 廢止해서라도 그名譽를獲得함이 暗明치않을까 近來에 於고 말이야 科選擇에있어서의 盲點이라고할까 떨어놓고 꼭 들어가야 하겠다는 目的下에 영롱한科를 志願하는 경우가 許多한데 大學在學時 自己가 本來 希望하던科로轉科가되면 多幸인데 그外에는 學問도疎忽히되고 不正도있고 그大學의 學的權威가 低下된다는것은 論外로 本人은 本業後라도別途 科目에만 年中 骨髓케 될것임으로 競爭率이 甚한 大學에 많이合格되는 高校나 그先生님이 흥분하다고 判定한다면 차라리 試驗科目外의

六書尋源의 研究 (上)

退耕 權丙勳 著

李 嘯 老

나는 平日에 恒常 우리東方의 三大著述家가 있다고 말하였으니 一은 新羅의 元曉大師이오 다른 두사람은 朝鮮의 許浚과 丁若鏞 그밖에 오늘부터는 이것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이 六書尋源의 著者인 權丙勳氏를 加하야 四大家로 헤이지 아니할수없다 元曉는 大華嚴經疏十卷 金光明經疏八卷 等 通計八十四種에 二百十餘卷을 著述하였으니 非特東方의 大著述家일뿐아니라 實로世界를通하여서라도 그만한多量의 著述이 또있기어려운바이며 陽川君許浚은東醫寶鑑○○等을 編述하였고 茶山丁若鏞은 與猶堂全書(近刊本七十五冊)이있고 惺齋權丙勳은 이六書尋源三十等을編纂하였으니 泛然히 冊數로만본다면 앞에三人과 한가지 四大家에參與할수있을듯하지마는 그實은 東醫寶鑑이나 與猶堂全書에 比하야 護頭는새로이 오히려 參考한感이있으니 爲當鄭寶普의 序文에이른바 細書로써서 冊이되었으므로 이卷數에 그치고 만 것이지 만일 에전처럼큰 글字로써서 分冊을 하였으면 無慮이 百冊에 지나갔을것이다 한것이 조금도 그릇본것이아니다 그러나 나는다시 四大著述家에서 許氏와 權氏를 더욱崇拜하는 다음이유 때문이다 나는 平生에 人種學을 연구하고 한 人類學의 一部門인 人文學의 各分野를 살펴보지 조목하면서 該題와관련하여 글을쓰다는것은 不啻한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보고 또 實地로 보자함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限하여말리기로한다 내가있던 미네소타大學은 東部地方에 散在하고있는 美國屈指의大學도 아니며 南部或은 西部山岳地帶에 서있는 시골大學도아닌 在學生數 約二萬名을 가진 말하자면 學國의 가장標準的인 大學이라고볼수있는 「미네소타」大學에서 그렇게지성히 어것나리라고는 믿지않는다

大學院에서 보통 一年半內에 碩士號를 四年間에博士號를 딸수있게되었는데 一般 勿論 才能과 努力如何에따라 더일찍딸수도있고 더늦게 間에 늘어지는境遇도 있을 마다 四十歲가 훨씬넘은 「라바드」 大學에서 一年만 있었다고 하면 「엘리오트」는 詩人 「엘리오트」는 大學에서 一年만 있었다고 하면 白髮老學生도는 「위스콘신」에 이러한사람 그리대도 敎室의 美國의 各大學을 돌려본 결과 大學 農科大學에서 四年半 분교는 어떡하지않고 自 然스럽게 各分野 各科目을 연구하고만 있는것은 年 齡과같은 纖指的인 題目에 關하여 글을쓰다는것은 不啻한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다시 四大著述家에서 許氏와 權氏를 더욱崇拜하는 다음이유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限하여말리기로한다 내가있던 미네소타大學 假令 한學期에 最少三講座 을 爲主로하는 두課程이있으나 어느편을取하든 平時 의持續的인 努力없이 學位 를따기는 어렵게 되어있다 課程과 筆記도는 口頭試驗 이 兩學位를 獲得하는데있어서는 論文을中心으로하는 課程과 筆記도

生態學上見地에서본 雲吉山練習林

李庚洙

…面斷의 울 겨…

雲吉山은 京畿道楊州郡瓦阜面에 所在한 水鐵等의 主山이다 中央線兩水里驛에서나 兩水里 北漢江에架設된 鐵橋위에서 西北方으로 바라본다면 群峰을 업누르고 우뚝솟은 靈峰 雲吉山을 主峰으로하고 南面 또는 西南向으로 펼어나린 林野가 바로 우리 大學의 練習林中의 하나인 것이다 이練習林의 東側에는 由緒깊은 寫소形의 水鹽寺가 보이고 南側으로는 이練習林到處에서 바라보는 北漢江의 合水點이 가로놓여있다 다른 後日로밀고 本論에 들어가기로한다

本是 生態學的 考察이라는것은 該當地域이 氣候 土地 生物等 立地因子에對한 考察을 意味하는것인데 林業家가 말하는 立地라는말은 生態學者가 使用하는環境라는말과 同一意義를가진것으로 解釋되는것이다 이 立地因子則 環境因子는 氣候 土化에비롯한 地形 地質 生物 人類 等 諸要素를 包含하였고 本大學校의 寄宿舍인 기園學舍가 竣工되기는 벌써 八年前인 檀紀四二八一年五月八日에 中區華洞三番七九番地 南山下麓인 覺心寺로서 터전을삼아 여기에서 靈命繼承과 傳法度生의 草賣을 걸머진 敎團出身을 總網羅 正式開外名命式을 嚴粛히 擧行함을 비롯하여 傳法度生의 修鍊道場으로서 힘찬新發足을 하였다 (1) 信心爲本 (2) 作務淸潔 (3) 異體同心을 合 訓三綱으로삼고 當時初代舍監으로 前東大學長 金東華先生 副舍監 朴奉海先生 任을 맡시었다

不幸하게도 不意의 六·二五動亂으로말미암아 기園學舍의 따뜻한보금자리는 때아닌서리를맞아 그만靈塊와 化土化해버린 悲運을 맞이였고 本大學校의 寄宿舍인 기園學舍가 離生되기는 벌써 八年前인 檀紀四二八一年五月八日에 中區華洞三番七九番地 南山下麓인 覺心寺로서 터전을삼아 여기에서 靈命繼承과 傳法度生의 草賣을 걸머진 敎團出身을 總網羅 正式開外名命式을 嚴粛히 擧行함을비롯하여 傳法度生의 修鍊道場으로서 힘찬新發足을 하였다 (1) 信心爲本 (2) 作務淸潔 (3) 異體同心을 合 訓三綱으로삼고 當時初代舍監으로 前東大學長 金東華先生 副舍監 朴奉海先生 任을 맡시었다

不幸하게도 不意의六·二五動亂으로말미암아 기園學舍의따뜻한보금자리는 때아닌서리를맞아 그만靈塊와

善良한 意識

＝個人의 整理를 爲하여＝

編輯室에서

星湖 金……칼

1

우리 週邊에 있는 사람들中에 自己를 確信하는 사람이 몇사람이나될까 確固不動한 信念을가지고 自己를 確信하는 사람은 至極히 적을것이다 우리一般人은 다만 自己를 確信하면 될것이라는 그 可能性을 確信할뿐이다 凡人으로서는 自己를 確信하면된다는 그 可能性을 믿기에到達하면 그의出發로서는 足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가 그 可能性을 믿도록되기까지 그는 數多한 彷徨과 苦痛을 經驗하고 結局 確信에 가차운 하나의信念으로써 自己 即 人間의可能性을 自覺할것이기때문이다 凡人이 그렇게 하는것이지 그 完全히 不安하지않은것은 없다 어떤 外部로부터의 還動이 個人의不安을 除去하지못한다 따만 自己本來的인 宗教的信仰이 個人의不安을 마취시킬수는 있지만 이世上에서의 自己의位置를 發見하려는者에 이것은 畢竟 逃避일것이다 人間이 그自身의不安을克服하고 沈着한 마음으로 自己와 自己의遭遇를 見수있는方法이 할이란 親切 正直 奇仕等 또한 可能性을 信念하는 이 善良한 人間의 善良性을 믿는것 이다 이러한信念이 微弱한 人은 不安과 劣敗感을整理 하고 優全한計劃밑에 正常的인 活動을 할수있을것이다

2

우리人間은 暫間식 이地球를 訪問하고 또 그 善良하지못하여 이 善良한 意識의 氾濫하는 無數한 社會現象이 그러나 國家나 民族에있어서도 全體가 이라는것을 우리는 아라야 할것이다

3

孔子는 孔子라할 運命을 가지고 태어난것은 아니다 意志를가지고 그自身이 努力하여 오늘날 우리가 尊崇하는 孔子라는 人物이된것이다

우리는 孔子라하면 孔子는나서 죽을때까지 끝내孔子的인 人物이었을것이요 또생각하지만 孔子自身으로써는 辛苦의修業을 繼續하였을것을 아라야할것이다 孔子가 後世에 찾이할位置를 미리 짐작했을 사람은 至極히드 물었을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같은 時代에같은樣式으로生活한 孔子가 한발자국 나 두발자국 自己를보고 앞섰다면 앞섰을것이라고 생각했을것이지만 實際로두두 里의 먼距離를 걸었기때문이다우리는 우리周圍에서도 이와 똑같은 現象을 目도한다 즉 一般的의 中學校 英語敎師가 國語講師로 轉職하는 것이 그 現象만을보고 中學敎師가 國語講師로 轉職하는 것이 그 現象만을보고 中學敎師로부터 一國의總理로의飛躍이 그저 운을 크게들붙은 것이고 그속에숨어있는 남이모르는 휘황의努力이 있었을것을 想像조차 못한다 中學敎師이던 그가 제아무리 出象하다하드라도 그저 十里의長에 不過할것이라고생각했을것이지만 果實이속 그 十里는 千里의 까마득한距離에